

## 서울국제심포지엄, 정보.문화.건축@서울.21 개최

11월 19,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를 위한 서울국제심포지엄인 ICAS21(Informasion, Culture, Architecture@Seoul21)이 11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와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를 비롯해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와 지역을 초월한 교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다. 임창복(성균관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1월 19일 행사는 15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의 '21세기 서울 도시·건축의 문화적 정체성', 빌 힐리어(런던대)교수의 '컴퓨터와 문화, 연구도구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11월 20일 행사는 헬렌박(경기대건축전문대학

원)교수의 진행으로 논문과 작품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하세가와 후미오(일본)의 '도시계획에 미친 비트뱅크의 영향', 게르하르트 슈미트(스위스 취리히 공대)교수의 'ETH World-증폭된 현실을 향하여', 썬실링(상하이 통지대)교수의 '동아시아 도시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창호(서울대)교수의 '미래도시의 계획: 서울의 새로운 천년 구상', 한스 스티먼(독일)의 '베를린: 새천년 도시건축', 제해성(아주대)교수의 '21세기 정보도시 서울의 건축과 그 문화적 정체성' 등의 논문발표 이후에 야마모토 리켄(일본), 이종호(스튜디오 메타),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 벤반 버클(네덜란드)의 작품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양 갑(서울시 주택국), 이희봉(중앙대), 승효상(이로재), 임연철(동아일보)씨 등이 참여한다.

## 서울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 발급

연회비 1년 면제 등 혜택

서울건축사복지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삼성카드사와 제휴, 이달중 '건축사복지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연회비 1년 면제, 2년간 교통상해 보험 무료가입의 혜택 외에도 삼성계열 자동차보험 가입시 10% 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사용금액의 1%가 가입자 앞으로 적립되며, 보너스클럽을 이용할 때는 3~5%가 적립되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달중 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문의: 02-585-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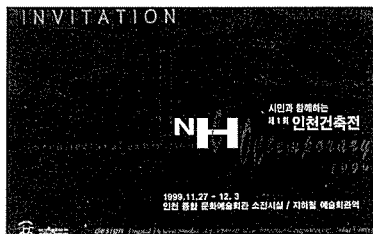
## (주)한샘, 아카시아건축상 공식 후원

매회당 미화 2만달러 기증기로

(주)한샘에서 아카시아건축상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이는 아시아 각 회원국협회에서 제출하는 응모작품을 부문별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아카시아건축상에 (주)한샘에서 후원금으로 매회당 미화 2만달러를 아카시아에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아카시아로서도 지난 제10차 아카시아포럼 행사를 통해 매우 큰 수확으로 평가했다.

## 제1회 인천건축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99건축문화의 해 인천광역시 추진위원회는 인천 시민과의 문화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전시회를 마련한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과 인천 지하철 예술회관역에서 11월 27일(토)부터 12월 3(금)까지 전시될 이번 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패널 전시나 인천에 대한 관례적인 소개의 차원을 넘어 창조적 의지가 담긴 입체적인 전시로 기획, '문화인, 인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한 문화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열린 문화축의 신선한 행사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출신 및 인천지역 활동 건축가 작품, 인천시민 건축백일장 수상 작

품, 학생공모전 수상 작품, 인하대, 인천대 건축공학과 학생 작품, 원정수교수의 인하대, 인천대 건축공학과 교수 작품, 인천국제공항 등이 전시된다. 한편, 12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원정수교수와 건축가 이일훈을 초청하여 '한국건축 어디로 가고 있나?'와 '일상속의 건축'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인하대 건축공학과 구영민교수 (032-860-7580)

## 제2회 울산 건축대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울산광역시, 한국예총울산광역시지회,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 울산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의 후원과 월간건축세계, (주)이건창호 협찬으로 제2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을 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연합전시회로 구성되어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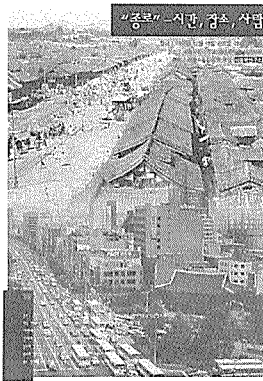
기간: 1999. 11. 13~18. (6일간)

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2·3전시장

##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99서울학심포지엄 개최

「"종로" - 시간, 장소, 사람」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에서는 11월 17일(수)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99서울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학연구소에서 20세기 서



울변천사 연구의 두 번째 기획연구로 추진중인 「"종로" -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련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종로:동지의 여러모습-한국현대사에서의 '종로' 읽기/권오만(시립대 국문과 교수)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종로의 모습/이동하(시립대 국문과 교수) ▷대한제국기~일제하 종로의 상가와 상인/전우용(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일제하 종로의 문화공간/장규식(시립대 국사학과 강사) ▷종로의 경관 읽기/조경진(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종로의 상업건축과 공간논리/김성홍(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종로 경제경관의 변화/남기범(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씨가 참여했다.

## 99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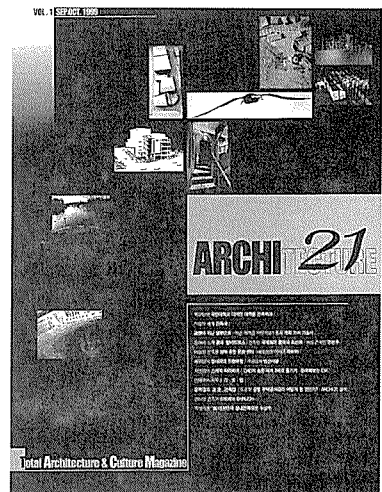
「페미니즘과 건축」 주제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원장 정진원)에서는 11월 12일(금) 오후 6시에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페미니즘과 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천의영(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페미니즘의 건축/이강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보그적 예술, 사이보그적 생태/김원방(미술평론가)의 주제발표가 있을 후

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이선영(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류전희(숭실대 건축공학과 교수)씨가 토론에 참여했다.

## 건축 & 문화 잡지 ARCHI 21 발간

TAS건축(소장 오인환)에서 국배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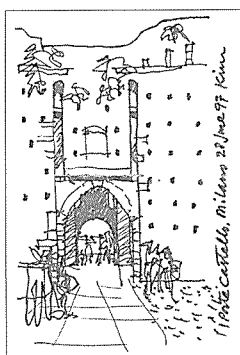


TAS건축사사무소(소장 오인환)에서 국배판으로 건축&문화 잡지 ARCHI21을 발간했다. 지난 10월 1일 창간호를 낸 이 잡지는 무가지로써 20대의 건축&실내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이 참여로 만들어 가는 '젊은 잡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잡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건축인의 건전한 대학 문화를 담아내고, 건축인 상호간의 참여로 연대감 형성을 추구하며, 내용에 있어서 계획, 설계 위주의 편식이 아닌 건축&실내 건축과 관련된 전 분야 특히 매호마다 대학 문화 소개(학교탐방, 동아리 소개), 현장 이야기, 여성 건축인 소개 및 비현, 낙선작 위주의 소개로 언더그라운드(Under Ground)적인 성격 등의 다양성을 시도하고,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시도하는 내용과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진학 및 취업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전국대학(교)과 설계사무소, 건설 회사, 대형서점까지 배포 중이며, 앞으로 회원제(정기구독)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TAS건축사 사무소 ARCHI 21 편 집부(02-3675-0213)

## 김성국 전시회

토탈 현대 미술관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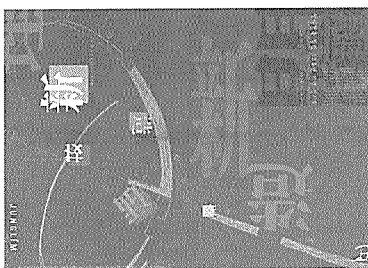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성국 교수가 그동안 작업했던 국내외 작품과 세계 각지의 여행스케치를 모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친필드로잉과 디테일 도면이 원본 그대로 전시되어 건축가 김성국의 작품과정을 여과 없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토탈미술관(02-379-3994)

## 정림건축, 창립32주년 기념 전시회

11월 20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주)정림건축은 지난 95년 De-Reconstruction의 해체 이벤트로 건축을 예술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그 이후 정림은 재구축되었고, 1999년에는 창립



32주년과 새 천년의 밀레니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건축이 단지 물리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아래 정림은 이번 전시를 개최, 한국 근대건축과 그 중 32년간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 정림작품과의 '역사적 궤적(time rotunda)'을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정림을 관계지우려고 한다. 전시는 11월 20일 시작하여 2000년 1월 31일까지 정림건축 1층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문의: 02-708-8600

## 홍익대 건축학과, 미국 IIT 건축대학과 자매결연

IIT 건축대학 Donna Robertson 학장 방문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10월 22일(금)에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시카고)건축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IIT 건축대학 학장인 Donna Robertson 교수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자매결연으로 앞으로 교수 및 학생 교류, 그리고 전시회 개최 등 상호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홍익대 건축학과는 지난 1997년에는 영국 AA스쿨과도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수상작 발표

대상에 수원시의 '반딧불이 화장실'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와 조선일보의 공동주최로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수준 높이기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심사결과가 지난 10월 8일 발표됐다. 전국에서 지역심사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106곳의 화장실 가운데 수상작을 확정, 발표했는데, 대상에는 수원시의 '반딧불이 화장실'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설악산국립공원내 소공원화장실,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선정됐다.

## 사랑의 집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최우수상에 '콘크리트블록위의 나무다락방'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는 국제 해비타트(Habitat)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랑의 집짓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에서 68개의 작품이 응모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서범석, 정성희, 윤숙희씨의 공동안인 '콘크리트블록 위의 나무다락방'이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우수상 1점,佳作3점, 장려상3점, 입선작 다수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주)현대산업개발·스페이스21 전시관에서 전시됐다. 수상안들은 입주예정

자, 자원봉사자, 건축전문인들을 주축으로 실제 건설되며, 공모자들도 직접 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 밀레니엄사업을 위한 건축포럼 개최

1차: 10월 22일, 2차: 11월 18일

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문화의 해와 다가오는 밀레니엄을 계기로 밀레니엄사업을 위한 건축포럼을 서울 대학로 라이브극장에 개최했다.

### 1차 포럼

일시: 1999년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라이브극장(광장건축 지하)  
 발표: 김봉렬(한국종합예술학교)/ 21세기의 건축행위  
 한경구(강원대학교)/ 프로세스에 관하여  
 정기용(기용건축)/ Reality & Mythology

사회: 민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토론: 김 원, 조성룡, 강성원, 이종호, 김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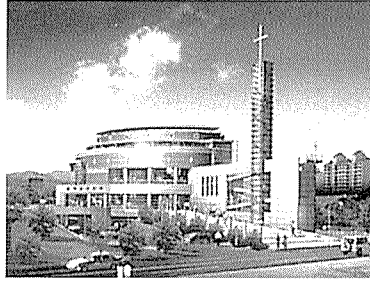
### 2차 포럼

일시: 1999년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라이브극장(광장건축 지하)  
 발표: 강성원(미술평론가)/ 가치론에 관하여  
 이진우(계명대학교)/ 환경을 둘러싼 인식의 문제  
 심광현(한국종합예술학교)/ 문화연구 관점에서 도시공간, 건축

사회: 민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토론: 김 원, 조성룡, 정기용, 한경구, 김봉렬, 이종호, 김영준

## 예조건축, 평택성결교회 현상설계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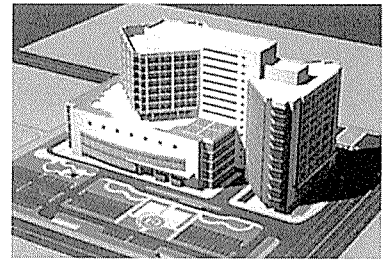
2000년에 착공



평택성결교회에서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교회신축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예조건축(주영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는 4개의 서울지역업체와 5개의 평택업체가 지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민병호(아주대), 정무웅(단국대), 이차돈(중앙대), 민창기(평택대), 서관석(성림건축)씨가 맡았다. 당선안인 예조건축안이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이미지에 부합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발주처측은 밝혔다. 대지면적 1,400평에 연면적 1,000평,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평택성결교회는 오는 2000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 삼우설계+서인건축, 을지의과대학 부속 둔산병원 턴키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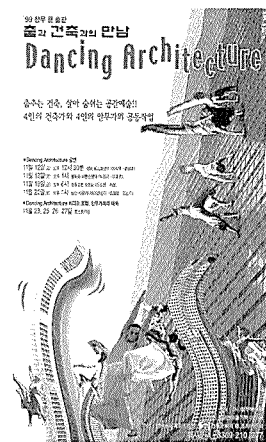
을지의과대학부속 둔산병원은 의료 및 의료외적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에 맞추어 새로운 의료 공급체계를 위해 을지의과대학부속 둔산병원 건립을 위한 턴키입찰을 실시, 총 6개팀이 지명되어 참여한



결과 삼우설계(김창수)+서인건축(최동규)의 공동안과 서울건축안, 원도시건축안 등 3개팀이 1차에서 선정되었고, 최종 삼우설계와 서인건축의 공동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발주처측은 당선안이 의료시설이라는 점에 부합하여 기술적이고 시설적인 측면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21,546.70㎡, 건축면적 6,694㎡, 지하4층 지상13층의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2000년 9월에 착공 예정이다.

## 「춤과 건축과의 만남」 개최

11월 27일까지 포스트극장에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창무예술원산하 창무댄스컴퍼니가 춤과 건축의 만남을 시도한다. 매년 춤과 타장르를 결합하여 무용예술의 창작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실험의 장을 만들어가는 창무 큰 춤

판이 그것이다. 무용인과 건축인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정적인 건축물과 동적인 인체의 조화로움의 만남으로 인한 충돌과 조화, 공존 그리고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포괄적인 창작 기획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건축물을 배경으로 무용공연이 있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포스트극장에서 건축가와 무용가들의 총 4회 공연을 비디오로 상영하고, 건축담론과 안무의도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비디오포럼 행사가 마련된다.

문의: 공연예술기획 02-3369-210, 277  
▷ 이 숙 재 - 함 성 호 의 Dancing Architecture/포스코센터

- 공연: 11월 12일(금) 오후 12시 30분
- 작품: 〈사랑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 속의 현대인들〉
- 비디오포럼: 11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 박 인 자 - 이 중 호 의 Dancing Architecture/바른손센터

- 공연: 11월 13일(토) 오후 1시
- 작품: 〈시간속으로의 여행〉
- 비디오포럼: 11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

▷ 한 소 영 - 서 현 의 Dancing Architecture/장충공원수표교

- 공연: 11월 19일(금) 오후 6시
- 작품: 〈박제된 인간〉
- 비디오포럼: 11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 장 정 윤 - 민 선 주 의 Dancing Architecture/서울애니메이션센터

- 공연: 11월 20일(토) 오후 1시
- 작품: 〈열린 담, 살아있는 신화〉
- 비디오포럼: 11월 23일(화) 오후 7시 30분

## 「집과 정원전」 개최

토탈미술관에서 11월 15일까지

동양과 유럽에서 활동중인 건축가 8명이 모든 문화의 기본이 되는 집과 정원을 주제로 각각의 문화와 시대를 반영하는 작업을 전시하는 「집과 정원전」이 지난 11월 15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경록(재미건축가), 토마스 한(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켄트 마르티누센&말렌트 앤더슨(덴마크), 민성진(S.K.M.디자인), 피터 타귀리(미국), 아론 탄, 안 유첸, 조셀 워(이상 대만) 등 8명의 작가가 같은 주제에 대한 작가의 서로 다른 해석과 연구를 보여줬다.

##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구로구,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

서울시 구로구는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건물)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적용방법: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법 제53조제3항10호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적용코자 하는 경우로써 정북방향 대지(건물)소유자 전원의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 8미터 이하인 부분, 8미터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각각 1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아카시아북」

### 판매에 따른 안내

영문본, 양장본(국배판) 232쪽(컬러)  
정가 3만5천원(특별할인가 1만8천원)

「아카시아북(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은 지난 95년 우리협회와 도서출판 발언이 공동으로 편찬한 것으로 한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15여개국 아시아국가를 대표하는 80여 건축가들의 빼어난 현대 건축물들을 600여컷의 컬러화보 및 도면 자료와 함께 건축가들의 설계개념, 철학을 충실히 담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고 등의 건축가와 작품소개는 다른 자료에서는 보기힘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발언에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할인기간으로 설정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정가의 50%수준인 1만8천원에 공급한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T:02-581-5711 F: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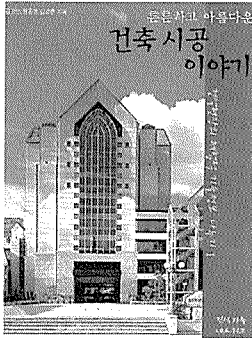
도서출판 발언

(T:02-929-3546 F:02-929-3548)

## 건축신간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시공이야기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  
현대집합주택 테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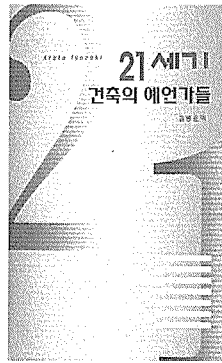
### ◆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시공이야기



쌍용건설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현장에서 함께 일한 기술자들이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엮은 기술정보서이다. 긴 시간 동안의 자료와 근거조사, 검증을 통하여 토공사부터 골조, 조적, 방수, 미장, 타일 석공사 그리고 마감공사와 조경까지의 전공정을 컬러 사진과 시공도면, 공중 결과를 상세하게 결하여 놓았다.

김광만, 현동명, 김영춘 지음/292쪽/1만8천원/건설기술네트워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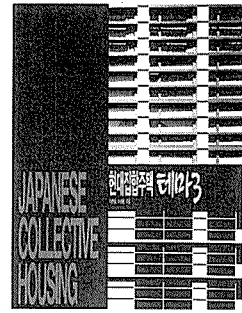
### ◆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



현대건축의 거장인 르 꼬르뷔지에, 미스 반 데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세사람에 관한 건축이야기 <건축의 예언가들>에 이어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프랭크 게리, 렘 콜하아스, 안드레아 브랑지, 제르미노 첼란트 그리고 백남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21세기 건축의 예언가들>이 현대건축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일본 건축가인 아라타 이소자키가 각각의 거장들과 함께 건축과 문화에 관해 논하며 그들의 작품성향과 프로젝트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대화체로 기술하고 있다. 어렵지 않게 읽어가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라타 이소자키 지음/김병윤 역/486쪽/1만5천원/현대건축사 발행(02-549-6444)

### ◆ 현대집합주택 테마3



이 책은 주거단지의 주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것들을 3가지로 구성, 테마들의 주요사례로 30여개 일본 집합주거단지를 열거하고 있다. 테마1에서는 현대집합주택의 유형을 밀도와 지형조건 등 물리적 기준에 따른 분류와 수요층의 주택구매 성향변화, 사회여건에 따른 집합주택의 변화 양상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테마2에서는 새롭게 다시 요구되고 있는 주거단지 개발 방식인 마스터아키텍트(Master Architect)방식을 새도시 개발, 도심재개발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경관, 환경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테마3에서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으로 주거단지 계획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념과 계획요소, 환경친화적 주거단지가 실현 가능한 개발 시스템을 실제 사례에서 찾아보고 있다. 이현호, 이정형지음/151쪽/2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학 전공 실습생 신청

호서대학교 건축학부의 건축설계학 전공(정원 45명)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나갈 건축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설계학 전공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금년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본 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과 건축실무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현실적인 감각과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방학중 3학점의 실습학점을 선택과목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습비 지급 등 건축사사무소의 부담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주간의 실습기간중 성과를 바탕으로 실습사무소의 건축사가 실습학생에 대한 평가 및 학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자료 등은 학교측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직 서둘고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들이지만 실무실습이 학업이나 장래에 여러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실습생을 받아주시길 건축사사무소는 전화나 Fax로 사무소명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학교측에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실습생 신청 기간: 1999. 12. 3.(금)까지

Tel: 0418) 540-5490

Fax: 0418) 548-5126

E-mail: archi@office.hosco.ac.kr